

**2** FEBRUARY  
2018 \* VOL.23

**이달의 HRD테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그리고 HRD의 방향

**정책 동향**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폴리텍 신종년·여성 재취업 위한 교육 강화

마이스터고와 함께 시험인증 전문인력 234명 양성

**현장 동향**

청년에게 일 경험을! 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공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24개 훈련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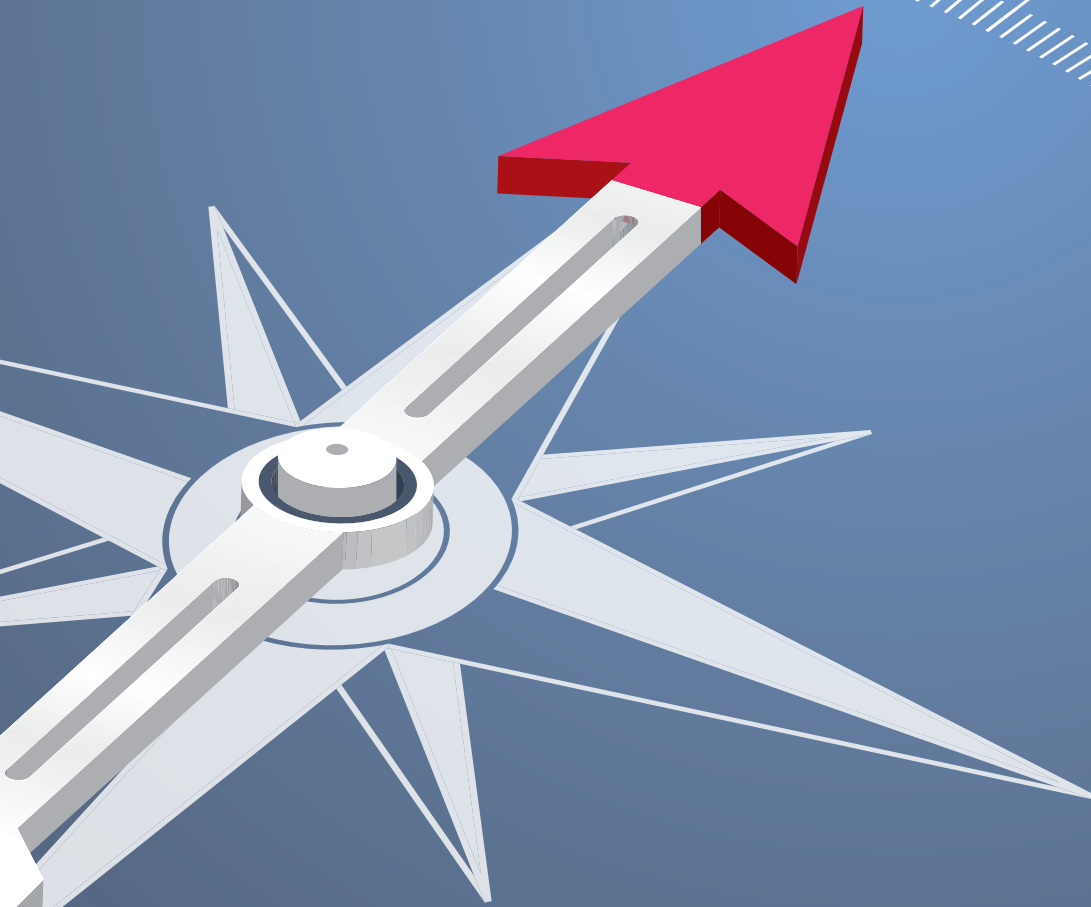
**HRD통계**

2017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연구 동향**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유망 국가기술자격 신설 직종 연구

**INDUSTRY 4.0**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사람을 위한 내일을 만듭니다!

“화재 보험에 들기 위해 집이 타버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듯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You cannot wait until a house burns down to buy fire insurance on it.  
We cannot wait until there are massive dislocations in our society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로버트 실러(Robert J. Shiller), 예일대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C O N T E N T S



### Cover Story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힘은 오직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동권 제23호

발행일 2018년 2월 5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기획실 미래전략팀

전화번호 052-714-8642

구독신청 및 문의 keh4785@hrdkorea.or.kr

인쇄 효민디앤피(051-807-5100)

편집디자인 효민디앤피

### 이달의 HRD테마

- 4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그리고 HRD의 방향

### 정책 동향

- 8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 9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 10 2018년 산업통상자원원부 인력양성계획 발표
- 11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2018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 12 직업훈련 모니터링 강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현장 동향

- 13 청년에게 일 경험을! 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공모  
2018년도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기관 모집
- 14 실업자 훈련과정, 신산업 훈련과정 지원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24개 훈련과정 운영
- 15 내일이룸학교에서 사회 첫 진입의 꿈을 이루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 서비스
- 16 폴리텍 신중년·여성 재취업 위한 교육 강화  
한국잡월드에서 바리스타, 웹툰작가 등 직업체험
- 17 마이스터고와 함께 시험인증 전문인력 234명 양성  
신중년 적합직무로 신중년 경력과 노하우를 잡(JOB)다

### HRD통계

- 18 2017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 연구 동향

- 20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유망 국가기술자격 신설 직종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 직업-2017 신직업 연구
- 21 Towards a Reskilling Revolution-A Future of Jobs for All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 분야 추진 전략 연구

### 기관 동향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그리고 HRD의 방향

##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꾸게 될 것』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경제פור럼의 회장인 클라우스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꾸게 될 것”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술 혁신의 일례로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를 들 수 있다.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의 대결에서 4대 1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는 인간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 결과였다. 인간은 더 이상 유일한 지식의 창조자가 아니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역할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

### 사물인터넷 (IoT : Internet of Things)

- 사물에 센서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 등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
- IoT가 도입된 기기는 사람의 개입 없이 상호 간 정보를 직접 주고받으면서, 필요 상황에 따라 정보를 해석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된 형태

###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 Cyber-Physical System)

- 로봇, 의료기기 등 물리적인 실제의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 및 주변환경을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 기존 임베디드시스템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서 제조시스템, 관리시스템, 운송시스템 등의 복잡한 인프라 등에 널리 적용 가능

### 빅데이터 (Big Data)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말함
- 증가한 데이터의 양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산업 현장에 활용할 경우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 등이 가능

### 인공지능 (AI : Artificial Intelligence)

-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
-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체하고, 더욱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기술 혁신이 일자리의 수를 감소시킬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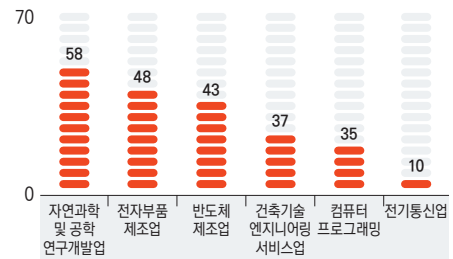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노동이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다. 세계경제פור럼(2016)은 향후 5년 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는 저숙련 일자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단순 판매직,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급 수준의 숙련이 필요한 사무직 등 반복 업무 영역과 의사, 재무관리자, 고위 간부 등 고숙련 고임금 직업도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ey & Osborn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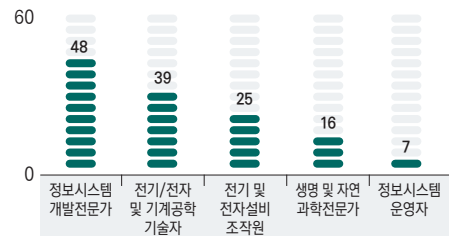
맥킨지 앤 컴퍼니(Mckinsey&Company)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동화로 노동자 400 백만명이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의 15%가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국일수록 높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자동화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가별 소득 수준, 인구, 산업 구조 등에 따라 자동화가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데, **한국은 일본에 이어 2위로 자동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 뿐이며 일자리를 전면적으로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Besseen and Meuer, 2014). Katz, L. F.와 Margo, R. A.(2013)는 기술 혁신과 함께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용률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취업자 증가(천 명)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별 취업자 증가(천명)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6년 스위스 연방은행(UBS)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 법적·제도적 문제의 5개 요소를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25위로 중국(28위), 러시아(31위) 등과 함께 중위권을 형성하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기술 수준은 23위, 교육 시스템은 19위, 사회간접자본은 20위를 기록했으나 법적·제도적 문제는 60위로 하위권이었으며,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은 83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했다**.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일어나면 숙련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없어지며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Autor, 2010). 또한 노동과 자본의 가치가 떨어지고 소수의 아이디어만이 희소 가치를 갖게 되어 소득 격차가 커지게 된다(Schwab et al., 2016).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노동(Arbeiten) 4.0 백서」(2017)를 마련하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노동환경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다.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정책

국가	정책내용
미국	AI R&D 계획('16.10), AI 미래 준비('16.11), AI, 자동화와 경제('16.12)
독일	첨단기술전략('10.7), Industry 4.0('11.4), 플랫폼 인더스트리 4.0('15.4)
일본	초스마트화사회 전략('16.1), AI 산업화 로드맵('16.11), 신산업 구조 비전('17.5)
중국	AI 3개 실행계획('16.5) 차세대 AI 발전계획('17.7)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변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급속한 기술변화와 일자리 변동성 증대, 직무역량 변화, 전문가 직군 취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 고용종사자 확대 등 환경변화에 발맞춰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핵심은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확립한 다는 것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혁신', '포용과 통합을 위한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미래를 선도하는 인력양성을 통한 사람·노동중심사회 구현'을 한다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이를 위한 4대 추진과제 중 첫번째로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훈련으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 신산업·신기술 분야 및 미래사회 대응 역량 제고 훈련 확대, NCS와 자격체계의 신설·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신호기능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주요내용

<b>비전</b>	미래를 선도하는 인력양성을 통한 사람·노동중심 사회 구현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혁신</li> <li>포용과 통합을 위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li> </ul>
<b>추진과제</b>	<b>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직업훈련 생태계 구축</li> <li>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 확대</li> <li>미래사회 변화 적응 능력 제고</li> <li>숙련과 자격체계 최신화</li> </ul>



#### 스마트 직업훈련 생태계 구축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온라인 공공학습 플랫폼) 구축
-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



####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 신산업·신기술 훈련 예산비중 : (18년)1.1%→(19년)3.0%→(22년)10.0%
- IoT, 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분야 고급·신기술 훈련 확대
  - 신산업·신기술 분야 재직자 훈련 확대(산업단지형 공동훈련센터)



#### 미래사회 변화 적응능력 제고

- 디지털 역량·기초ICT과정 보급·확산
-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



#### 미래형 숙련과 자격체계 구축

- 미래유망분야 NCS 매년 신규 개발 (핀테크 엔지니어링, 실감형 플랫폼 구축 등)
- 신산업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 (로봇기구개발,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 등)



## 『4차 산업혁명 대비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 ▶ 스마트 직업훈련 생태계 구축

개방형 플랫폼 상에서 훈련공급기관-훈련참여자-훈련지원 멘토-현장수요가 상호작용하며,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가상훈련(Virtual Training)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터랙션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통합훈련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훈련 수요공급 정보 생성 및 공유체계 마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온라인 훈련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합훈련정보시스템 고도화

現 커리어 진단	유사집단 애널리틱스	진단서 기반 컨설팅
프로필을 통한 근무이력, 구직희망, 고용서비스 수혜이력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 유사집단을 비교·분석해 개인별 추천서비스 확인	상담을 통해 고객과 함께 필요한 일자리 탐색 활동 및 실현 계획 검토

### ▶ 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공공, 민간, 학교가 각각 역할을 맡아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를 위한 학과 개편, 콘텐츠 개발 보급과 최신 훈련기법 확산 등을 수행하고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에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과정 개설을 확대, 사업주 훈련비 지원체계 개편으로 기술향상·전문 디지털 역량훈련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 ▶ 미래사회 변화 적응능력 제고

미래 노동시장 전망·예측 기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일자리 및 필요 역량 변화를 시간간으로 파악하고 예측 결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에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편, 직업훈련, 자격제도 신설 등에 활용한다.

직업기초능력 중 디지털 역량에 관한 사항을 수준별로 체계화시켜 훈련기관에 보급·확산하고 신중년·경력단절여성 등의 디지털 능력 습득 지원을 위한 기초 ICT 과정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4C(창의력, 의사소통력, 비판적분석력, 협업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등 참여형 학습 방법으로 혁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중심으로 기초직업능력 관련 교과 활용 확대 등 훈련과정을 다양화한다.

### ▶ 숙련과 자격체계 최신화

미래 유망분야 NCS 개발을 통한 인력양성 기반 구축, 직업교육·훈련 활용을 통한 실력중심 인재양성 확대 및 NCS 적용의 자율성 확대 추진한다. 자격과 현장의 밀착성 강화를 위해 산업현장 수요를 토대로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 변경하여, 자격의 노동시장 신호기능을 강화하고 과정평가형자격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주요기능

##### 산업현장 적합 훈련 콘텐츠 개발·탑재

- 분야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 형식 : MOOC, 플립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 신 훈련방식 중심

##### 공공훈련기관 등 개발된 무료 이러닝 콘텐츠 통합 관리

-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훈련콘텐츠 탑재
- NCS 학습모듈 기반 실습훈련 영상콘텐츠, 한기대·폴리텍 강좌 등

##### 지식공유 오픈 마켓플레이스 형성 지원

- 훈련기관 외에 지식, 기술, 노하우 보유자

##### 직업능력개발 관련 이러닝 검색 엔진

## HRD 칼럼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나동만

(shoutndm@krivet.re.kr)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기술발전 트렌드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생산성은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우리의 일자리가 기계, 로봇으로 대체되어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신기술로 다가오게 될 미래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과장하지 말고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인류문명의 발전을 돌아보면 어떤 기술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는 인간의 가치와 행동, 심리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기술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실현된 것이고 사람에게 유익한 기술이 성공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인간을 기계가 대체하는 세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영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스카ynet과 같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는 세상과 아이언맨의 초실한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존재하는 세상 중 당연히 후자의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망 직업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변화한다. 우리 사회는 이 중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대한 논의가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망산업에는 일자리가 생기고 사양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현 상황에서 감소하는 일자리와 늘어나는 일자리 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비교하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보유한 직무능력과 직업이 인공지능기술과 로봇기술의 발달로 인해 쓸모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개인에게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기 마련이고 이는 새로운 역량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융합기술의 시대기 때문에 미래에는 복수의 기술을 보유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융합형 인재는 여러 기술을 보유한, 즉 다재다능한 인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은 한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관점과 자

원을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지식과 기술을 가진 타인과 협업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하는 것이다. 과거 유망산업들, 특히 융합 산업 분야의 발전을 보면 전통기술과 신기술 분야의 접목,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기업들의 전략적 M&A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여러 기술을 보유한 숙련인재를 양성하여 산업 성장을 견인한 것이 아니다. 필자는 그 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유망 산업에 관련된 기술훈련을 공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으나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발전에 따라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꾸준히 새로운 기술 습득과 활용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반가운 외, 2017)에서는 한국 노동자들의 스킬퇴화가 젊은 연령대, 입사초기에 가장 크게 일어나 다른 나라와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현재 청년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기술과 업무방식을 습득하고 있음에도 막상 취업 후에는 빠른 속도로 이에 대한 역량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필자는 그 답을 재직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강화와 확대에서 찾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청년들의 스킬퇴화를 상사들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어렵다.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재직자 훈련참여율이 30%도 못미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 내외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들도 입사 이후 새로운 기술활용,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제대로 된 계속교육·훈련을 받아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업무방식을 보유했으나 실무경험이 약한 청년들과 이들이 소통, 협업하려면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기존 구직자 중심에서 재직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재직자 훈련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훈련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들이 실무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사용자(user) 훈련을 확대·공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2018년 1월 18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지난 1월 18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 [ 고용노동부 ]

■ 소득주도 성장을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가지 중점과제 집중 추진

① 노동시장 격차 해소,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③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신종년 등 맞춤형 취업지원, 4차 산업혁명형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

## [ 중소기업부 ]

■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 증가에 주력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추진

①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②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매출·소득 증대,

③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 ④ 중소기업 정책 및 업무 혁신

■ 일자리 평가지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내일채움공제를 활성화할 계획

## [ 보건복지부 ]

■ 3대 정책목표 실천을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 변화

①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③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 스마트 헬스케어 등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에 주력 예정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할 계획

① 농식품산업 및 농산촌 일자리 창출, ②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 '18년 일자리 33천개, '22년까지 17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 창업·취업 지원, 반려동물·산림·말산업·곤충산업 등 인력양성 및 지원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예정

## [ 해양수산부 ]

■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3가지 정책과제 추진

①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

③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해운산업 재건 및 항만 민간투자 확대,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해양관광레저 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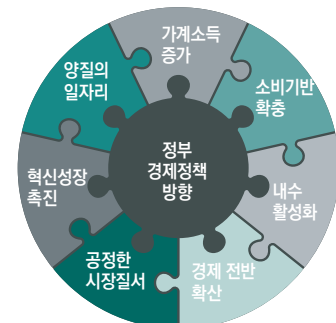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 실시



정부 경제정책 방향 - 소득주도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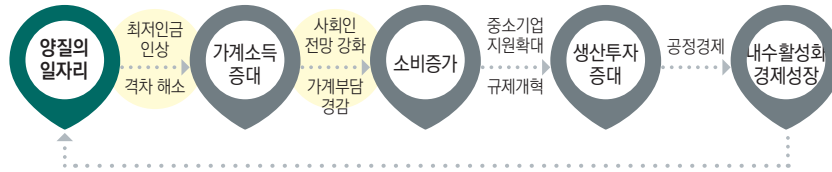


#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2018년 1월 18일, 고용노동부

■ 1월 18일 정부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세 가지 중점과제의 집중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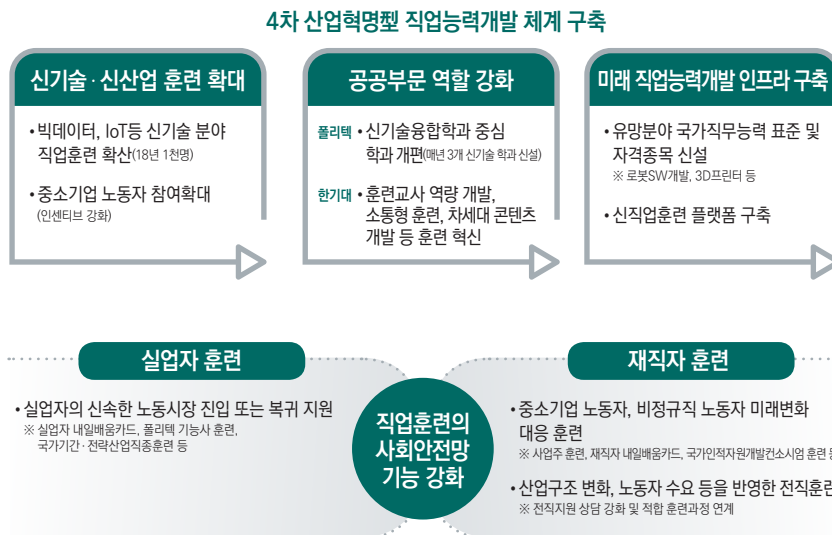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책 추진방향]



■ 고용노동부 정책의 '17년 성과 및 '18년 업무추진계획

'17년 성과	'18년 계획
(1단계)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	(2단계) 소득주도 성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를 국정 최우선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위원회 신설(위원장:대통령)</li> <li>- 일자리 로드맵 발표</li> </ul> </li> <li>•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저임금 인상] '16년 6,030원</li> <li>'17년 6,470원</li> <li>'18년 7,530원</li> </ul> </li> <li>•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목표 7.4만명 전환 결정 완료('18.1월 기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증대</li> <li>•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격차해소</li> </ul> </li> <li>일을 찾는 구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기회 확대</li> <li>• 청년신중년 등 맞춤형 취업 지원</li> <li>• 직업훈련, 고용·산재 보험 등 안전망 강화</li> </ul> </li> <li>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시간 근로 개선</li> <li>•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일과 생활의 균형</li> </ul> </li> </ul>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과제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 체감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계획 발표

정책 추진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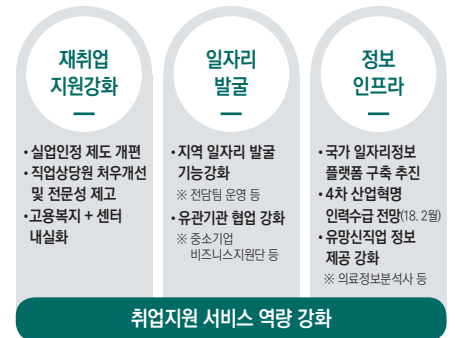
1. 사회적대화 활성화



2. 일자리 중심 정부정책 확산

- 고용영향평가 확대·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 현장 중심 일자리정책 추진

고용센터 혁신방안



#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계획 발표

2018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 지난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 인력양성계획 발표

■ 인력양성 추진을 위한 3개 추진방향

- ①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강화
- ② 산업계 수요 반영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산업전문인력 양성
- ③ 일자리 연결(취업)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 강화

■ 분야별 인력양성 세부 추진계획

- 산업별 전문인력 2,684명, 지역 연구인력 2,463명, 에너지 전문인력 1,500명, 무역 전문인력 1,280명,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150명 등 산업전문인력 8천여명 양성 추진
- 산업단지 근로자 5,340명 대상 평생학습 교육 지원
- 전국 71개 공과대학생 2.1만명 창의적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육 지원
-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120명 재취업 지원

## 2018년 산업부 인력양성 계획(안)

구분	사업명	예산(백만원)	'18년 지원계획(안)
산업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80,110	3D프린팅, 스마트선박 등 25개 업종별 산업전문인력(석·박사) 2,294명 양성
	바이오인력양성	1,460	바이오 GMP(품질관리), 바이오의약·화학 R&D 핵심인력 180명 양성
	나노융합 기술인력양성	1,020	나노인프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나노융합 기술인력 210명 양성
지역	산학융합지구조성	10,053	산학 공동연구인력 2,463명 양성 (융합R&D, 프로젝트Lab, 인턴십) 산단 내 평생학습(학위 494명, 비학위 4,846명)
에너지	에너지인력양성	35,541	에너지효율·신재생·전력·원자력 등 분야 에너지 R&D 전문인력(학·석·박사) 1,500여명 양성
무역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2,633	동남아·중앙아·인도 등 권역별로 특화된 예비 무역인력(대학 3~4학년) 1,280명 교육
	FTA 전문인력양성	613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업무담당자 대상 FTA 활용컨설팅 교육 150명
기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	14,549	창의적 종합설계 프로그램 참여 공대생 지원, 공대 교육과정 혁신 등(약 2.1만명 예상)
	산업현장여성R&D	370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시행(120명 이상)
합계 : 9개 사업 146,349백만원 (4.5% ↑)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지역·에너지·무역

전문인력 8천명 양성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전망

Gartner('13)

- '25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1/3, '30년까지 90% 대체

WEF('15)

- 향후 5년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개 사라지고 신규 일자리 210만개 창출(△500만개)

日 경산성('16)

- 구조혁신 성공해도 '30년까지 161만개 감소(현상 유지 시 735만개 감소)

맥킨지('17)

- 정규직 인력 11.9억명이 자동화 영향 받을 것

## 2017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4%

신산업 전문인력 부족률 높음  
(전산업 평균 2.4%)  
- 바이오·헬스 4.0%, SW 3.5% 등

40.1%

입사 1년 이내 조기퇴사율 40.1%

49.3%

청년(20~30대) 산업기술인력 비중 49.3%  
- 최초로 50% 미달한 것으로 일자리(인력) 미스매치가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의미

##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2017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 ■ 최저임금액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주 40시간 기준 월 1,573,77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노동자수 30인 미만)의 경영상 어려움 완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18.5.29부터 신입사원도 연차유급휴가 보장(입사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보장

### ■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직업훈련 지원 확대

-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훈련 참여 가능

###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www.work.go.kr/lifeplan](http://www.work.go.kr/lifeplan)) 다양화

- 40세 이상 중장년의 경력진단 및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한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등  
고용노동정책 개선



## 2018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2017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

### ■ 여성분야

-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운영([saeil.mogef.go.kr](http://saeil.mogef.go.kr))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 추진

### ■ 가족분야

-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66개→113개 지역) 및 취약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 청소년분야

-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전문인력 확충
-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을 3개 권역(서울·충북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50→260개소)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센터(202→206개소)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서비스 개선

# 직업훈련 모니터링 강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2018년 1월 12일,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는 1월 12일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

- 금번 대책은 사후적 처벌 강화는 물론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직업훈련 사업 각 단계별로 취약요인을 점검·보완함

〈단계별 주요내용〉

### 진입

-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 등을 변경하고 재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 장소, 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 확인
- 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수준이 낮음(8~9등급) 경우 훈련참여 제한

### 운영

- 대리출석 방지를 위하여 위치기반 기술이 적용된 '비콘', 지문·지정맥 인식기 등 도입 유도
- 원격훈련에 대한 출결관리 대폭 강화(휴대폰, OTP 본인인증 등)
- 훈련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실제 수강여부 모니터링(Auto Calling System)
- 훈련생 수강평을 비공개로 작성하도록 하여 부정훈련에 대한 제보 기능 확대
- 직업훈련 관련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한 "부정패턴" 확대(35개→'19년까지 65개 이상), 부정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화

### 제재

- 상습적 법위반기관 명단 대외적 공표
-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현금·직원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도입 등 법개정 추진
- 훈련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과정뿐만 아니라 같은 직종의 다른 훈련과정까지 확대 적용
-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과정 인정제한" 부과 등 제재처분 강화 예정

※ 비콘(Beacon) :

비콘 신호 내에 훈련생 스마트폰이 들어오면, 이를 인지하는 위치기반 기술

※ OTP(One Time Password) :

무작위 생성되는 일회용 비밀번호 이용한 인증방식

## 청년에게 일 경험을! 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공모

2018년 1월 17~31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까지 2018년도 일경험지원사업에 참여할 역량있는 운영기관(대학 및 민간 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경험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정보습득 및 중소기업 인식 개선, 기업현장에서의 직무경험 등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진로탐색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금년에는 역량 있는 운영기관의 참여 및 일경험지원사업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전체 선정규모는 축소하되, 기관당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관의 전문화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금년 상반기 중 양질의 일경험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업유인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니 역량있는 대학과 민간기관이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구직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일경험홈페이지(www.work.go.kr/expe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추진일정

#### 공모·접수

(~1. 31, 관할 고용센터)

#### 선정심사

(~2. 9, 8개청 고용센터)

#### 운영약정 체결

(~2월말, 운영기관관할·고용센터)

#### · 중소기업 탐방: 30개 기관 내외(8개 권역 고려, 기관규모 조정 가능)

\*'16년(47개 기관, 11,000명) → 17년(37개 기관, 10,000명) → '18년(30개 기관, 10,000명)

#### · 재학생 직무체험: 80개 대학 내외(8개 권역 기준으로 기관규모 조정 가능)

\*'16년(57개 대학, 2,000명) → 17년(93개 대학, 5,000명) → '18년(80개 대학, 5,000명)

## 2018년도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기관 모집

2018년 1월 10~30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존 직무를 재설계(직무의 전문화, 세분화, 재구조화, 통합화 등)하여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18년도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관(기업·사업주단체, 대학, 민간 우수훈련기관)은 대학 및 기업과 협약을 맺고, 협약대학 또는 자체 교육훈련시설에서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연수생 모집, 교육과정 운영,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 취업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제안 연수과정(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및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 우수훈련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 실업자 훈련과정, 신산업 훈련과정 지원 확대한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는 '18년 상반기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실업자 훈련과정 5,632개, 재직자 훈련과정 8,341개를 선정 발표했다. 훈련과정은 직업훈련 심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직업훈련기관의 역량, 훈련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심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산업직종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② 청년층 선호직종 지원으로 청년층 훈련참여의 폭을 확대하였다.
- ③ 조선업 밀집지역 및 중소도시 거주자의 훈련수강 편의를 위해 중소도시지역 등의 훈련과정 291개를 추가선정 하였다.

정부지원 실업자훈련 수강희망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적성 등 상담을 통해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훈련과정의 종류, 취업률 및 소득수준에 따라 훈련비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산업 주요 훈련분야

3D프린팅  
BIM(Building Information Management)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태양광  
드론

### 지원절차

훈련상담(센터 ↔ 실업자등)

계좌발급(센터 → 실업자등)

훈련수강(훈련생 ↔ 훈련기관)

비용지원(센터 → 훈련생·훈련기관)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14개 훈련기관·24개 훈련과정 선정

2018년 1월 8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1차로 참여할 14개 훈련기관, 24개 훈련과정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서울대, 고려대, 한성대, 멀티캠퍼스, 비트 컴퓨터 등으로 빅데이터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24개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참여 신청 후 선발절차를 거쳐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계좌를 발급받으면 되며, 3~10개월에 걸쳐 진행될 훈련의 훈련비 전액과 매월 20~40만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게 되고, 훈련을 이수하면 각 훈련기관의 협약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지원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1월중 훈련생 모집을 시작하여 빠르면 2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게 되며, 상세일정은 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공지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추가 모집은 4~5월 경에 실시될 계획이다.

### 2018년 직종 및 참여기관



#### 스마트제조(3)

고려대(1),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1)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1)



#### 사물인터넷(4)

고려대(1), 멀티캠퍼스(1), 비트컴퓨터(1),  
한국융합기술진흥원(1)



#### 빅데이터(9)

서울대(3), 멀티캠퍼스(1), 한성대(1),  
비트컴퓨터(1), (사)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1),  
영우글로벌리닝평생교육원(2)



#### 정보보안(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1)



#### 핀테크(2)

멀티캠퍼스(1), 비트컴퓨터(1)



#### 디지털콘텐츠(4)

고려대 세종캠퍼스(1), THE국제직업전문학교(1)  
아텐츠게임아카데미(1),  
(사)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1)



#### 바이오(1)

고려대(1)

## 내일이룸학교에서 사회 첫 진입의 꿈을 이룬다

2018년 1월 16일,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여성가족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18년도 운영기관 8개소를 선정하고, 직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기관은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의 전문성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자립동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곳들로 선정됐다.

내일이룸학교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 훈련과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되며, 훈련생은 출석률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형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로 내일이룸학교 수료생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내일이룸학교 수료생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또는 꿈드림센터(www.kdre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일이룸학교'란?

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 사업이 2017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며 새롭게 바뀐 명칭으로 '청소년의 내일(미래 또는 나의 일)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김

### 훈련기관 현황

지역	훈련기관
서울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기계가공조립)
	애란원(간호조무사과정)
	사회복지법인 CJ나눔재단 (바리스타, 단체급식)
대구	대구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드론운용 전문인력 양성과정)
인천	인천실용전문학교
	(미용사(네일) 국가 자격증 취득과정)
충남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과·제빵과정)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꿈을 위한 미용사 양성)
전북	원광보건대학교(헤어미용)

##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 서비스

2018년 1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지텔프(G-TELP) 등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확대(10개 자격) ▲특별추가접수를 통한 시험 응시 기회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사례형 문제 출제 등 고객중심의 국가전문자격 시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해 11월, G-TELP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존 TOEIC과 JPT에만 제공되던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G-TELP도 확대해 공인어학성적을 필요로 하는 감정 평가사 등 10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정기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자들을 위한 특별 추가접수 제도를 마련해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

한편 국가전문자격의 지식암기형 출제를 지양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사례형 문제 등 현장성을 강화해 자격시험과 실무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자격의 효용성을 높인다. 수험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자격체험방 앱(App)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체험할 수 있다.



## 폴리텍 신중년·여성 재취업 위한 교육 강화

2018년 1월 17일,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은 신중년 인생2막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중년 특화과정은 전국 4개 캠퍼스에서 7개 직종 300명, ▲베이비부머과정은 31개 캠퍼스에서 41개 직종 1,200명, ▲여성재취업과정은 27개 캠퍼스에서 39개 직종 950명을 모집한다.

신중년 특화과정은 정부의 5060세대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이며, 베이비부머과정과 여성재취업과정의 취업률은 지난해 각각 51.4%와 52.4%를 달성했다. 이러한 재취업 과정은 경제적 부담이 없어 수업료 및 식비를 전액 지원하며,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과 교통비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www.kopo.ac.kr](http://www.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정별 지원대상〉

과정명	지원 대상
신중년 특화과정	취업을 희망하는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
베이비부머과정	취업을 희망하는 만 45세 이상 65세 이하 미취업자
여성재취업과정	임신, 출산, 육아 등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

신중년 특화과정 모집현황

캠퍼스	학과	직종
서울정수	자동차	자동차복원
	그린에너지설비	공조냉동
서울강서	의료정보	시니어 헬스케어
남인천	특수용접	특수용접
	스마트전기	전기시스템제어
대구	스마트전기	전기설비기술
	산업설비자동화	특수용접

## 한국잡월드에서 바리스타, 웹툰작가 등 직업체험

2018년 1월 5일, 한국잡월드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겨울방학을 맞아 학교교사와 바리스타, 웹툰작가 3종의 특별 직업체험을 운영한다. 이는 2016년 12월 입장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실제 체험해보고 싶은 직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청소년체험관 이용연령인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각 체험실에서는 실제 현장과 유사한 직업체험이 진행되며, 청소년체험관 특별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어린이체험관에서는 파티플래너, 화가 등 3개의 체험실이 리뉴얼되어 운영한다.

특별 직업체험을 예약하거나 직업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한국잡월드 누리집([www.koreajobworld.or.kr](http://www.koreajobworld.or.kr))을 방문하면 된다.

학교교사 체험실



웹툰작가 체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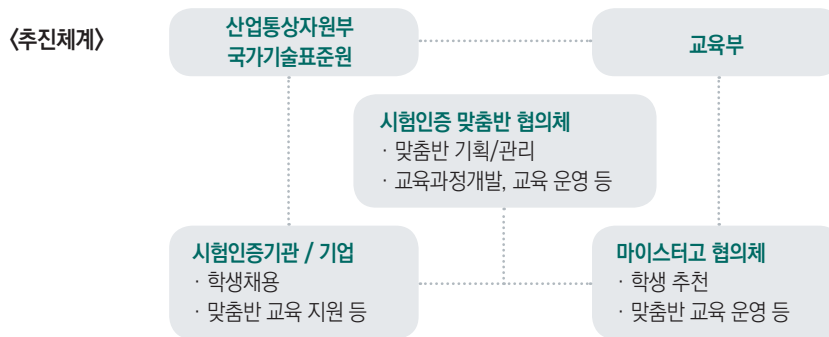


## 마이스터고와 함께 시험인증 전문인력 234명 양성

2018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월 19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등 10개 마이스터고 학생 37명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13개 시험·교정기관간 '시험인증 전문인력 채용약정'을 체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부터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이스터고 맞춤형 교육'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마이스터고에서 추천된 2~3학년 학생을 시험인증과 관련된 이론, 시험·검사장비 실습, 성적서 작성 방법 등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한 후 졸업과 동시에 시험인증기관 및 민간기관이 채용하게 된다.

이번 사업부터는 교육분야를 4개로(화학·바이오, 기계·금속, 전기·전자, 교정) 확대·실시하고 채용 기업을 기존 비영리 시험인증기관에서 민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까지 범위를 확장해 구직학생과 채용기업간 선택의 폭을 넓혔다.



## 신중년 적합직무로 신중년 경력과 노하우를 잡(JOB)다

2018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후속조치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시행에 나섰다. 이 사업은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최대 1년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적합한 직무로 지속가능경영전문가, 전직지원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11개의 신직업과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신중년 적합직무로 인정한 직무도 포함되어 있다.

###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

- 신중년의 경력 및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  
※ (예시)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경영·진단 전문가
- 정보통신발달·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는 직무  
※ (예시)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노년플래너
- 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직무 중 직업훈련 등을 통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용이한 직무  
※ (예시) 조경기술자, 전기 설비 기술자

# 2017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고용노동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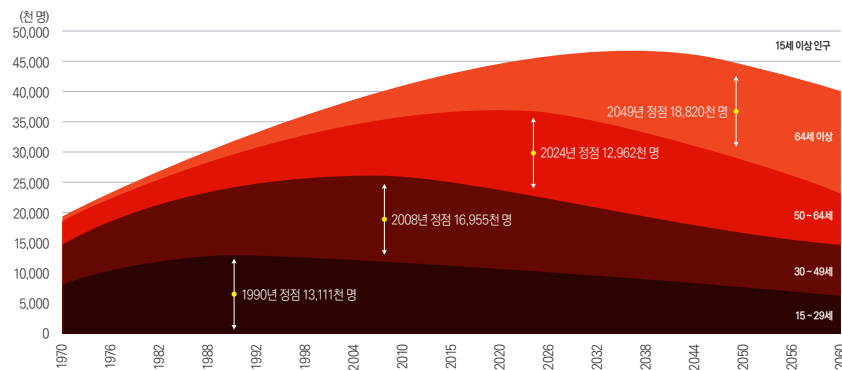
고용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2017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발간하였다. 본 통계집은 우리나라 고용노동관련 통계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전국총괄, 업종별 현황, 대상별 현황, 지역별 현황 등 크게 4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간 노동시장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OECD 국제비교 통계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 ■ 전국총괄 편

- (인구동향)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층(15~29세)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중년층(30~49세)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으며, 장년층(50~64세)은 2024년을 정점으로, 노년층(65세이상)은 2049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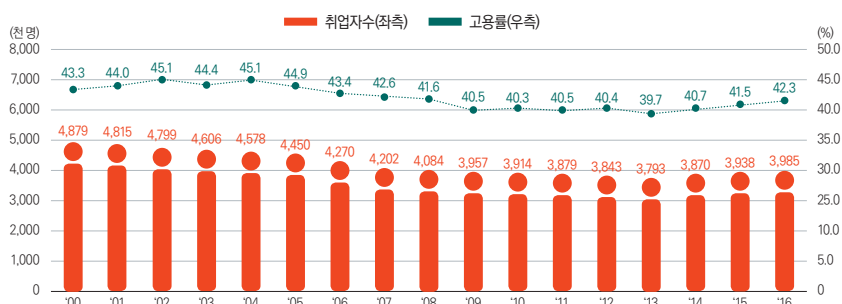
〈연령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추이〉



## ■ 대상별 현황

- (청년)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와 고용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3년을 저점으로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음. '16.6월 청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1,674원이며, 월 근로시간은 163.1시간임

〈청년층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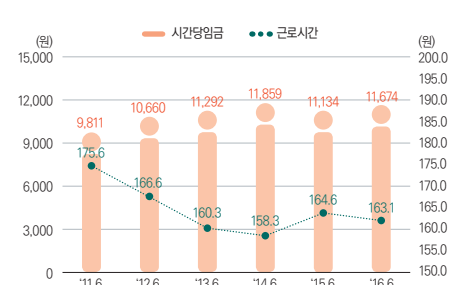
## 전국총괄 편

우리나라의 인구동향, 경제 및 고용동향, 노동이동,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노사협력 등의 통계지표를 수록

## 대상별 현황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대상인 “청년”, “여성”, “장년”을 대상으로 노동력현황, 취업현황, 근로조건 등의 통계지표를 수록

## 청년층 시간당 임금 및 월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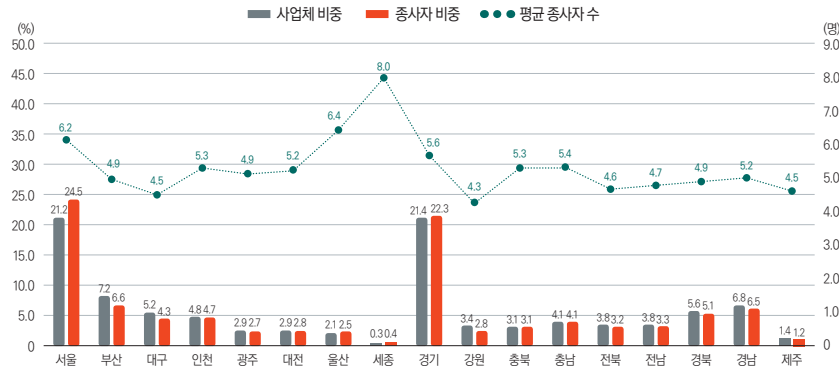
## ■ 지역별 현황

-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 '15년 기준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많은 반면, 평균 종사자 수는 세종, 울산, 서울 순으로 많음. 한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사업체의 47.4%, 종사자의 51.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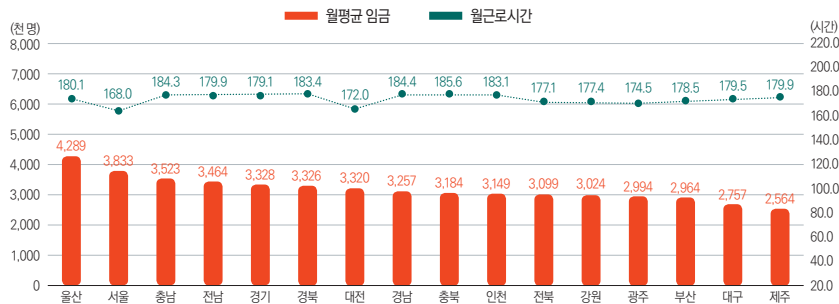
## 지역별 현황

16개 광역 시·도별로 인구, 지역경제 및 산업현황, 고용, 근로조건 등에 대한 지표를 수록

###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



- (지역별 임금 및 근로시간) '16.4월 기준 지역별 월평균 임금은 울산, 서울, 충남 순으로 많았으며, 월근로시간은 서울, 대전, 광주 순으로 짧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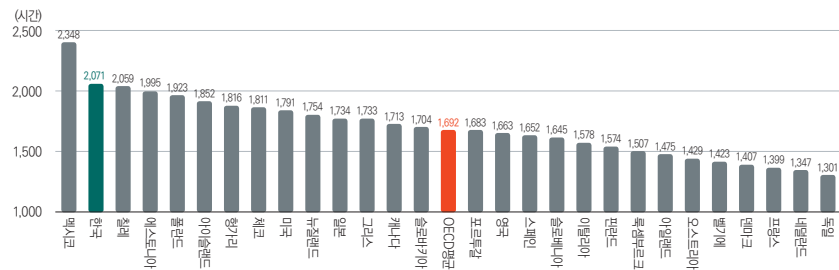
## ■ OECD 국제비교

- (연간 근로시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5년 2,071시간으로 OECD 28개국 중 두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남

## 국제비교

부록으로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고용률, 근로시간, 노동소득분배율 등 고용노동관련 국제비교 통계를 함께 제시

###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임금근로자 기준)〉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유망 국가기술자격 신설 직종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 ■ 목적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 및 인력수급 전망과 국내 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미래유망 자격 신설 필요 직종을 도출함으로써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임

###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신기술 및 인력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독일, 미국, 일본 등 국외 및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조사함
- 미래유망 자격종목 발굴 및 운영 방향 제시를 위해 국내외 문헌분석 후 4차에 걸친 전문가 협의 회 운영, ISC 및 관련 협회 설문조사, 산업현장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검토를 실시함
-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기계, 농림어업, 금융·보험 등 총 6개 영역에서 최종 20개 미래유망 자격종목을 제시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직업 - 2017 신직업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18

연구자 : 김한준, 김중진, 여인국



### ■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관련기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직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존직업의 지형구조 변화, 수행업무의 변화 그리고 고용구조와 업무환경변화의 측면에서 조망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신직업을 제시함

###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일자리 지형구조의 변화, 둘째, 수행업무의 변화, 셋째 고용형태 및 근무환경의 변화로 구분함
- 4차 산업혁명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망직업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위기 직업을 제시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빅데이터 분석가, 인공지능전문가 등 신직업을 선정하고 수행직무, 국내외 현황 등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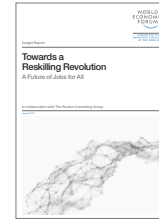
### 신직업 상세정보 주요 내용

상세정보	주요내용
직업의 생성배경	우리나라에서 태동 여부, 생성배경(외국에 이 직업이 존재하거나 활성화된 이유 등)
수행 직무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정확한 범위와 활동
외국현황	고용자 수, 임금, 성장가능성, 관련 진출 분야, 자격,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요구 되는 역량 및 적성) 등
국내현황	활동할 수 있는 장소, 해당 직업의 고용현황(종사자 수/ 임금 등), 관련 교육/훈련 등
신직업 정착방안	법률 개정 및 제도 변경, 이해당사자의 업역 갈등 등 도입 저해 요인, 직업의 필요성(유망성), 활성화 방안 등

# Towards a Reskilling Revolution A Future of Jobs for All

“기술 재교육 혁명 : 일자리의 미래”

World Economic Forum &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8



## ■ 목적

- 세계경제포럼(WEF)과 보스턴컨설팅그룹 공동으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인 일명 ‘다보스 포럼’에서 “Towards a Reskilling Revolution: A Future of Jobs for All”보고서를 발표함.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 ■ 주요내용

- 본 보고서는 미국내 100여개 직종을 분석 대상으로 신기술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을 분석함
- 2026년까지 사라지는 일자리로 사무보조직 64만 2000명, 제조생산 51만 1000명 등의 순인데, 사라지는 일자리의 57%가 여성의 일자리로 분석되어 향후 일자리의 남녀 불평등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진단함
- 직업 전환 과정에서 가장 강한 생존력을 보이는 직종은 하이브리드 스킬을 보유한 직업인임을 강조하며, 융합기술과 비판적 사고, 특정분야의 전문성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함
-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재교육을 통한 직접 전환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함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 분야 추진 전략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연구자 : 김철희, 류기락, 박재성



## ■ 목적

- UN은 빈곤퇴치와 인류발전을 위한 인류공동의 달성목표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 하고 이행을 지향하고 있음
- 본 연구는 SDGs 중심의 글로벌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의제에 대한 추진경과, 논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능력 정책, 제도 등과의 연계 및 향후 대응방안,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SDGs 맥락에서 주목하는 직업능력개발(TVET)은 단순한 기술 지식의 연마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경제성장에서 필수적인 기제임을 강조함
- 2015년 이후 SDGs의 방향성과 층위, 참여주체 등의 확대 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영역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은 기초교육이나 중등교육 같은 순수한 교육의제 로만 치부될 수 없고, 노동과 산업, 그리고 고용과 촘촘하게 연계된 특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전 사회적인 개발의제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의 SDGs의 논의 동향, 선진국의 이행사례 및 대응현황, 국내 논의 동향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음

## SDGs 17개 목표 분야

구분	목표 분야
목표 1	빈곤퇴치
목표 2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안보, 영양
목표 3	보건 증진
목표 4	포괄적/공평한 교육 및 평생교육
목표 5	성평등, 여성 역량 강화
목표 6	물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목표 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 에너지
목표 8	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목표 9	인프라 구축, 포괄적/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조성
목표 10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목표 1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목표 13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목표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목표 15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목표 16	평화적 사회, 법의 지배, 효과적인 제도
목표 17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실행수단의 강화

# 기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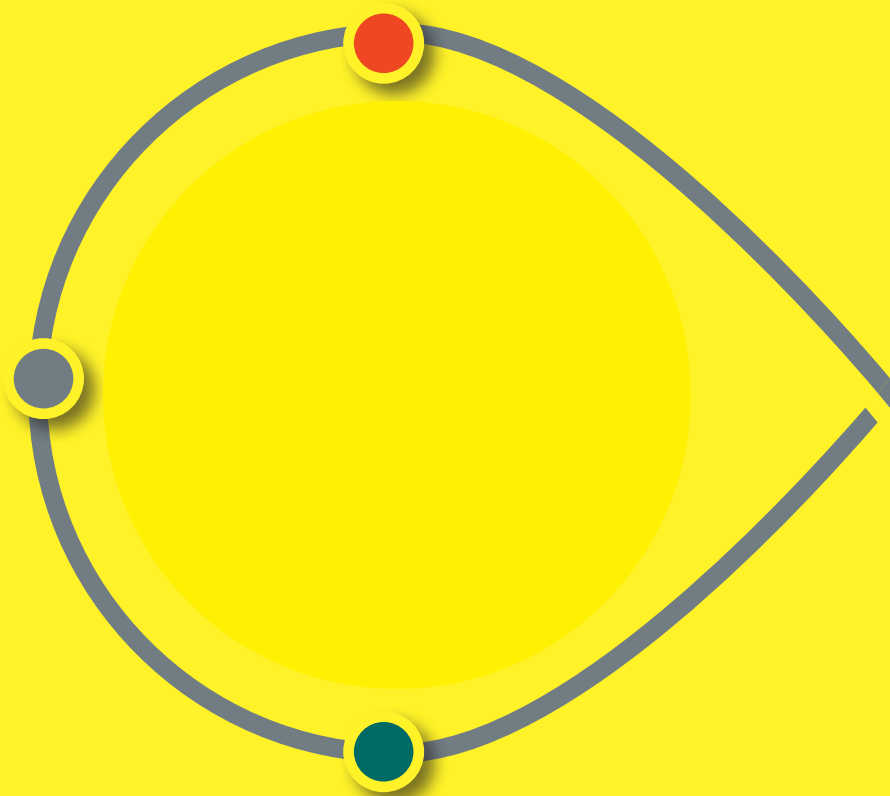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14개 훈련기관·24개 훈련과정 선정·발표(1차) (1.8.)
-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1.12.)



- 2018년도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1.10.~1.30.)
- 2018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설명회 개최(1.16.)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기관 담당자 워크숍(1.17.~1.19.)
- 노사가 함께하는 NCS 활용 간담회(1.19.)
- 2018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공고(1.22.~2.2.)
- 2018년도 제1차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정기공모(1.22.~2.14.)
- 2018년도 NCS 개발·개선 의견 수렴(~1.26.)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와 MOU 체결(1.29.)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제안서 접수(~1.30.)
- NCS 및 블라인드 채용 안내 특강(1.30. 거창대/ 2.2. 호서대)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자격학회 학술대회(2.8.)



- 한국고용정보원 조직개편 시행 - 4실 2센터로 개편
- 고용패널 자료설명회 진행(2.26. 서울 전경련회관)
-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진로지도과정 집합교육(1.26.~1.29. 부산 리베로 호텔)
- 2018 청년고용정책 이해 및 활용, 대학일자리센터 진로·취업 지원 사례 공유 등)

2018  
02



한국폴리텍대학

www.kopo.ac.kr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학과신설 키포프 회의(2.1. 서울정수캠퍼스)
- 개교 제20주년 기념행사(2.5.)
- 2018년 직무능력평가사 마스터클래스 보수교육(2.5.~2.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2018년 국제개발협력 역량강화 직무연수(2.6.~2.8. 신기술교육원)
- 희망플러스센터 HRD역량강화 직무연수(2.8.~2.9. 대전캠퍼스)
- 2017년도 학위수여(수료)식 개최(2.9.)
- 도제 사업관리 시스템 담당자 워크숍 개최(2.26. 대전캠퍼스)



KOREA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www.koreatech.ac.kr

- 신한은행과 업무협약(1.22.)
- ACE+ 성과확산 심포지엄 개최(1.24.)
- 한국경제신문 밀레니엄포럼 참석(1.25.)
- 파라과이 노동부장관 코리아텍 방문(1.25.)
- 2018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1.30.)
- 조선일보(조선예듀) 기관장 특집인터뷰 보도(2.5.)
-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2.23.)
- 2018학년도 입학식(2.28)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2018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권역별 설명회 개최(1.20. ~1.23. 예정)
- 2018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 심사 접수(1.10.~1.30.)
-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기관 선정심사 결과공고(1.8.)

K R I V E 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 2018 진로교육 페스티벌 개최(1.10.~1.11.)
- 파라과이 노동부와 상호 업무협약 체결(1.24.)
- 2017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 개최(1.26.)
- 제4회 K-CESA 활용 대학생 핵심역량 학술대회 개최(2.8.)



# '18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를 만나보세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세요!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누가, 얼마를 지원 받나요?

####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단,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지원가능

####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 · 우편 · 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www.jobfunds.or.kr](http://www.jobfund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h-well  
국민건강보험



NPS 국민연금공단